국민성장펀드 3개월 성적 -4.17%… 국민 기대에 찬물

설정액 1조1190억, 순자산 1조943억
정부-운용사 후순위 출자금 20% 부담
일부 펀드 완충 범위 초과 우려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4.17%로 집계됐다. 일부 자펀드에서는 정부와 운용사가 손실을 약 20%까지 먼저 떠안도록 설계한 완충 범위를 넘어서 원금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성장펀드는 폐쇄형이라 5년 만기가 돼야 최종 손익 여부가 가려진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전체 펀드 유형별·테마별 평균수익률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공모 국민성장펀드(6개)의 3개월 수익률은 -4.17%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설정액은 1조1190억원, 순자산은 1조943억원이다.

펀드 테마별로 다른 주요 펀드의 같은 기간 평균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형펀드(설정액 122조원) -23.06%, 국내 채권형펀드(96조원) 0.75%, 레버리지펀드(35조원) -41.33%, 퇴직연금펀드(45조원) -9.51%, 연금저축펀드(16조원) -12.23% 등이다.

기준가격으로 볼때도 상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성·KB·미래에셋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기준가격은 가입 클래스별로 951.25~952.08원이다. 운용사별 4개씩 총 12개 클래스 모두 6월 12일 설정가인 1000원보다 4.79~4.88% 낮았다. 설정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기준가격으로 환산한 평가액은 약 951만~952만 원이다.

1차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상장주식 약 10~30%, 비상장주식 약 15~45%, 그리고 채권, 인프라 대출,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등으로 투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이 약 20% 안팎을 먼저 흡수, 부담한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년 만기 폐쇄형 펀드인 만큼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펀드에 비상장주식과 메자닌처럼 바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자산이 섞여 있고 자산별로 가치평가 시점도 달라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향후 자펀드의 투자 자산과 비중 등을 점검하고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앞으로 3개월 주기로 공시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은 상장주식(28.4%)이었다. 상장 메자닌(10.1%), 비상장 메자닌(4.6%), 비상장 주식(0.7%)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주식과 메자닌 등에 총 16.1%를 투자했다. 헬스케어(7.7%), 산업재(5.9%)가 그다음이었다. 현금성 자산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집계됐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배재규 "AI, 20년 산업 이끌 메가트렌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AI 밸류체인 담은 TDF 출시 세미나
피지컬 AI 등 7개 분야에 분산 투자
"단기 보다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23일 열린 한국투자신탁운용 신규 생애주기펀드(TDF)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의 과도기에 서 있다. AI는 향후 20년 이상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메가트렌드인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미래 성장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한 신규 타깃 데이트 펀드(TDF)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장기 연금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근 새롭게 선보인 한국투자연금적격TDF알아서글로벌AI밸류체인 펀드의 투자 철학과 운용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사장은 "이번에 선보인 TDF는 AI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해 전통적인 글로벌 자산 중심의 기존 TDF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한다는 당사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만들어 낼 부의 기회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출시된 이번 펀드는 은퇴 목표 시점(빈티지)에 따라 2050·2060·2070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어 정지훈 DGIST 교수는 '투자 관점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문명사적 임팩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현재 AI 사이클은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는 '구축기'에서 서비스와 실질적인 이익을 거둬들이는 '수확기'로 진입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서 피지컬 AI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투자 시사점을 짚었다. 특히 실물 제조 기반의 가치를 강조하며, 파운더리·패키징의 대만, 메모리·제조업의 한국, 소재·장비의 일본이 피지컬 AI 시대에 생산 거점으로서 핵심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한국투자TDF알아서글로벌AI밸류체인 펀드의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해당 펀드는 장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AI 밸류체인 투자와 TDF의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반도체,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네트워크,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7개 분야에 분산 투자하고,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도 투자해 지역적 분산 효과를 추구한다.

또한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며, AI 산업 내 주도 분야와 기업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밸류체인별 성장 단계와 시장 환경, 종목별 상대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설계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보다 AI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밸류체인에 분산투자해 산업 내 주도권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연금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두나무, AI·블록체인으로 시장 디지털 혁신

중기청·소진공과 아이디어 공모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2026년 전통시장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각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은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통시장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청년들의 시선에서 전통시장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두나무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GIWA(기와)'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방안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 심사 결과, 전통시장 현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4개 팀이 수상했다. 이 중 두나무의 기술적 비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업비트(GIWA)상'은 성균관대학교 최준렬, 윤현아 학생이 차지했다. 이들은 분산된 지역화폐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는 플랫폼 '마켓체인'을 제시했다.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선보여 두나무 임직원 및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FC 망원 킥오프' 팀 - 망원월드컵시장 연계 게임형 마케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만세장터' 팀 - AI 도슨트 기반 역사·관광 연계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알고 가는 시장' 팀 - AI 활용 재고관리 및 고객 안내 서비스)이 각각 수여됐다.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은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쿠킹(Happy Cooking)'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증권

교보증권, 직접 만든 간식으로 온정 나눔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교보증권은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쿠킹(Happy Cooking)'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해피쿠킹'은 임직원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지역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오란다 과자 100세트를 제작했다.

완성된 간식은 비영리단체 '함께하는 한숲'을 통해 안양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됐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간식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빗썸, 국세청 379억 과세소송 일부 승소

218억 세금 취소로 부담 덜어
이벤트 지급 코인 등은 과세 인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79억원 규모의 조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었던 가상자산의 평가 방식도 회사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회원 유치를 위해 지급한 이벤트 보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23일 디지털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빗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부과된 세금 중 약 218억원은 취소되고, 이벤트 지급분에 대한 세금 약 30억원은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1~4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6월 기타소득세 약 86억원과 법인세 약 293억원 등 총 379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비거주자 회원에 대한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특정 국가의 서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2020년 말 별도로 신설된 점도 고려했다. 해당 개정은 기존 과세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성격인 만큼, 개정 이전인 2018년 지급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2020년 말 신설되긴 했지만 시행은 2027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신하은 기자